

HOME > 오피니언 > 기획/시리즈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양파·마늘 밭농업 기계화 박차

이영수 기자 / 기사작성 : 2025-06-22 14:36:45

3년간 20억 들여 농기계 250여대 보조... 노지 스마트농업 전환 확산
마늘·양파 '종횡무진 프로젝트'로 일관 기계화 실증
파종·정식·수확 신기술 보급 ... 기계화 선도 기반 마련
마늘 종구 퇴화 방지 위해 작년 40톤 우량 종구 보급



▲ 합천군이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양파·마늘 기계 정식(파종)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합천=이영수 기자] 경남 합천군이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양파·마늘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함께, 생산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밭 농업의 기계화 촉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는 12개 사업에 약 40억원의 국·도·군비를 투입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마

늘, 양파 주산지 일괄기계화 우수모델 지원사업에 선정돼 22억원의 임대농기계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농가의 인력 부담을 줄이고 있다.

합천 지역의 양파·마늘 재배 농가는 약 1800농가, 재배 면적은 1800ha가 넘으며, 이들 작물은 농업 부문 총 생산액의 15~20%를 차지하고 있다. 단일 작목으로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 양파 마늘 경쟁력 향상의 지름길

농촌 노동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노지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 발작물 기계화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대부분 노동집약적 재배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기계화율은 63.3%에 불과하다. 이는 논 농업의 99.3%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종식되면서 농업 인건비 하락을 기대했으나, 마늘 재배면적 1000ha 파종 인력은 4만명, 양파 재배면적 500ha 정식 인력은 약 2만명이 필요하며 인건비(1일 기준 15만원)로 약 90억원이 외부 인력, 용역 비용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라간 인건비는 외국인 근로자 등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아 농가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낮은 기계화율 속에서 양파·마늘 생산에 투입되는 인건비가 50%를 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밭 농업의 스마트 기계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

■ 스마트 기계화를 선도하기까지의 노력

마늘과 양파의 기계화에서 정식, 파종, 수확 단계의 기계화율이 특히 낮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합천군은 최근 3년간 약 20억원을 투자해 생력화 농기계 250여대에 대한 보조사업을 추진해 농번기에 부족한 농기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정식 단계와 수확 단계에서 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합천군은 2023년부터 농진청 주최의 마늘·양파 종합무진 프로젝트에 참여해 일관 기계화 실증과제를 수행했다. 지역 기계화 선도 농가와 주기적인 간담회 및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농진청의 마늘 기계화 재배 매뉴얼에 '합천군 마늘 기계화 우수 사례'가 포함돼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파·마늘 스마트 기계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 지속적인 기계화율 제고 의지 필요

기계화 농기계 뿐만 아니라, 마늘 종구의 성능 퇴화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 지역 농협, 생산자 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마늘 주아 종구를 농업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분양하고 있으며 작년에 40톤의 우량 종구를 보급했고 올해도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이상기후 등으로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양파의 적정 재배면적을 유지하기 위해 양파

종자대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생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합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역 대표 작물인 마늘과 양파 생산을 위해 생산자 단체와 유관 기관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민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www.siminilbo.co.kr>]